유도 강유정 역도 손현호 고향팀에 새 둥지

강유정·김혜미 순천시청 손현호 광주시청
양궁 최미선 순천시청 역도 신비 완도군청

강유정

김혜미

손현호

최미선

신 비

올해 국내외에서 광주·전남의 명예를 빛냈던 지역의 우수 선수들이 2019년 새 둥지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특히 한국 양궁의 대표 주자 최미선(광주여대 4년)을 비롯해 유도 국가대표 강유정(용인대 4년)과 김혜미(한체대 4년), 역도 유망주 손현호(정광고 3년)와 신비(고흥고 3년)가 고향에 남아 국내외에서 한국과 고향을 대표하는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체육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거취가 관심사였던 최미선은 이미 지난해 순천시청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전남체고를 졸업한 뒤 광주여대로 진학했던 최미선은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7년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여자양궁 일인자다. 국내 내로라하는 실업팀들의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최미선은 고향에 머물기를 택해 내년부터는 순천시청 소속으로 국내외 대회에 나선다. 순천시청에는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양궁 '왕중왕전'인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은경이 있어 두 선수를 앞세운 순천시청 양궁팀의 활약 역시 기대되고 있다.

순천시청 유도팀도 강유정(-48kg급)과 김혜미(-70kg급)가 입단한다.

강유정과 김혜미는 여수정보과학고 유도팀 동기다. 두 선수는 고교 시절 전남을 대표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 대학은 각각 다른 곳으로 진학했지만, 전국체전은 항상 전남 대표로 뛰었다.

강유정은 고교 시절 전국체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용인대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기록했고 국가대표로도 활약 중이다. 김혜미도 고3 때 동메달을 획득했고 한체대 소속으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전남에 안겼다.

순천시청은 강유정과 김혜미가 입단하면서 박다솔(52kg급)과 함께 3인방 체제로 2019시즌을 보내게 된다.

올해 전국 고교무대를 평정한 광주·전남의 역도 유망주 손현호와 신비도 각각 광주시청과 완도군청팀에 둥지를 튼다.

손현호는 올해 전국체전 남고부 77kg급 2관왕이다. 고교 1학년 때 은메달 2개로 전국체전에 데뷔한 그는 지난해 금 2개와 은메달 1개에 이어 올해도 체급을 평정한 소년 역사로 내년부터 일반부 무대에 뛰어든다.

'형제 역사'로 유명한 신비도 완도군청에 입단한다. 신비는 고교 1학년 때 이미 2관왕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 지난해 체전에서도 2관왕을 하더니 고교부 마지막 무대였던 올해 전국체전 69kg급 3관왕을 달성했다. 용상에서는 대회신기록(172kg)을 수립하기도 했다.

신비는 중학 무대를 주름잡고 첫 전국체전에 나선 동생 신록(고흥고 1년)과 함께 올해 전국체전에서 6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한편, 지역의 우수선수가 모두 고향에 둥지를 틀기는 힘들다. 광주여대 이소담(4년)은 홍성군청으로, 곽진영(4년)은 전북도청에 입단한다. 또 한국 여자정구 기대주 서현조(순천여고 3년)는 충남개발공사 입단이 예정됐으며 여자레슬링 유망주인 성화영(광주체고 3년)은 충남도청, 여자수영 남상아(광주체고 3년)는 대전도시공사에 입단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2018 광주 체육인의 밤 성료
광주형 일자리 성공 기원 결의

2018년 한 해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송년의 밤이 성황리 마무리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1일 빛고을체육관에서 '2018 광주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광주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체육인들은 광주시 최대 현안인 완성차 공장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한 체육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완성차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지역 체육계의 소망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뜻을 모아 결의했다.

이날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서는 한 해 지역 체육발전에 공을 세운 체육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각 부문별로 표창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섭 시장은 "올 한 해 광주체육은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다"고 격려하며 "광주의 최대 현안인 완성차 공장 유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화 기자

공염불 된 'FA 계약금 총액 30% 상한'

그래도 SK만 지켰다

4년간 총액 125억원을 받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NC 다이노스로 옮긴 자유계약선수(FA) 양의지는 계약금으로만 60억원을 받는다.

계약금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한다.

역시 NC와 3년간 최대 20억원에 사인한 모창민도 계약금 8억원을 받는다. 모창민의 계약금은 총액의 40%에 이른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지만, 프로 10개 구단은 FA 상한액을 4년 총액 80억원으로 묶고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FA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 구단 간 과도한 지출 경쟁을 막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계약금을 주는 관행도 깨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미 FA 총액 상한 설정이 불발된 터라 각 구단이 계약금 총액 30% 상한을 지킬 의무는 없다.

다만, 구단들이 합의한 '합리적인 투자'란 명분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점에선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내부 FA를 모두 잡은 SK 와이번스만 계약금 30% 상한을 지켰다.

SK는 최정에게 6년간 총액 106억원이라는 거액을 선사하면서 계약금을 30% 선인 32억원에 묶었다.

역시 4년 69억원을 받는 조건에 SK에 잔류한 이재원도 총액의 30%인 21억원을 계약금으로 받는다.

SK의 한 관계자는 12일 "애초에 두 선수와 계약할 때 계약금은 30%로 묶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와의 B조 조별리그 6차전이 끝난 뒤 해리 케인(왼쪽) 등 동료들을 얼싸안고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 71분' 활약
토트넘 챔스리그 16강 진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비기면서 극적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71분간 활약했다.

토트넘은 12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 노우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바르셀로나와 1-1로 비겼다.

2승 2무 2패 승점 8로 조별리그를 마친 토트넘은 승점이 같은 인터밀란에 원정 다득점에 앞서 조 2위로 16강에 올라섰다.

최종전 전까지 토트넘과 승점이 같았던 인터밀란(이탈리아)은 같은 시간 홈에서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과 1-1로 비기면서 결국 조 3위로 밀려났다.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투톱에 내세우고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델리 알리까지 주전 공격수들을 모두 투입했다.

반면 일찌감치 16강행을 확정한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와 제라르 피케 등을 쉬게 하며 1.5군으로 토트넘을 상대했다.

초반 공격은 바르셀로나가 주도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7분 우스만 뎀벨레가 역습 상황에서 단독 드리블 이후 선제골을 만들어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날 선발 데뷔전을 치른 토트넘 수비수 카일 워커 피터스의 실책이 실점의 빌미가 됐다.

선제골 이후에도 바르셀로나의 압박에 막혀 고전하던 토트넘은 전반전이 중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전열을 정비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공격의 중심엔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전반 32분 빠른 돌파로 일대일 찬스를 맞았으나 골키퍼 야스퍼르 실레선의 정면에 막혔다.

전반 37분에서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슈팅을 날려봤으나 골키퍼가 몸을 던져 막았다.

손흥민은 후반 11분에도 골대 정면에서 위력적인 슈팅을 날리는 등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따른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여러 차례 바르셀로나 골문을 공략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8분 메시를 투입해 승리 확정에 나섰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 26분 손흥민을 루카스 모우라와 바꿔주며 쉬게 했다.

메시 투입 이후에도 공격의 주도권은 토트넘이 가져갔으나 동점 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다.

그 시간 이탈리아에서는 인터밀란이 에인트호번과 1-1로 비기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이대로 가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위기였다.

그러나 토트넘은 후반 40분 케인의 패스를 받은 모우라의 오른발 슈팅이 마침내 바르셀로나 골문을 뚫으면서 멀어져가던 16강행 티켓을 다시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황의조·이덕희·황인범
스포츠마케팅어워드 선수부문 수상

황의조

이덕희

황인범

올해 한국 축구를 빛낸 황의조(감바 오사카)와 황인범(대전 시티즌), 한국 남자 테니스 유망주 이덕희가 '제4회 스포츠마케팅어워드 2018' 스포츠선수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사단법인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제4회 스포츠마케팅어워드 2018 행사를 연다"라고 12일 밝혔다.

스포츠마케팅어워드는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토토가 후원한다.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은대국민 평가위원 평가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를 종합해 부문별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스포츠 선수 부문에는 올해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축구대표팀에서 맹활약한 황의조, 황인범을 비롯해 테니스 유망주인 이덕희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 제4회 스포츠마케팅 어워드 부문별 본상 수상

▲스포츠 선수 부문 = 이덕희, 황의조, 황인범

▲지방자치단체 부문 = 보은군, 순창군, 합천군

▲프로스포츠 구단 부문 = 성남FC, 안산그리너스FC, 한화 이글스

▲기업·브랜드 부문 = 매일유업, 코인제스트

▲스포츠 기업·브랜드 부문 = 낫소, 피파스포츠

▲스포츠 단체 부문 = 로드FC,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

▲스포츠미디어 부문 = 아웃도어글로벌 /연합뉴스

벤투호 전술·회복 병행 '맞춤형 훈련'
측면 공격전개 다듬어…황인범 등 일부 회복 집중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비해 울산에 모인 '벤투호'가 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훈련으로 담금질을 이어갔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둘째 날 훈련을 치렀다. 전날 오후 겨울비를 맞으며 미니게임 등 첫 훈련을 소화한 데 이어 둘째날은 오전 강한 바람 속에 1시간 반가량 훈련이 진행됐다.

14일 합류가 예정된 조현우(대구) 등 4명을 제외한 19명 중 이날은 18명이 그라운드에 나섰다.

전날 숙소에서 컨디션 조절에 힘썼던 황의조(감바 오사카), 장윤호(전북), 김준형(수원), 시상식 참석으로 늦게 도착한 이용(전북)이 돌아왔다.

소집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던 황인범(대전)은 이틀 연속 운동장엔 나오지 않은 채 실내에서 의무 트레이너와 따로 회복에 집중했다.

황의조, 장윤호, 김준형은 전술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라운드 주변을 가볍게 돌거나 패스를 주고받는 등 몸을 푸는 데 중점을 뒀다.

이들을 제외한 선수들이 참가한 전술 훈련에서는 본격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다듬기 시작했다.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 후방 빌드업 과정에 특히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 수비수들이 하프라인 쯤에서 길게 패스를 올리면 측면의 이용(전북), 홍철(수원) 등이 받아 크로스로 잇고, 이를 골대 앞에서 득점 기회로 연결하는 연습이 반복됐다.

김민재(전북)의 롱 패스를 왼쪽에서 홍철이 받아 연결하면 조영욱(서울)이 마무리하는 식이다.

이어진 미니게임에서도 이런 과정은 강조됐다.

각 팀의 중앙 수비진에는 김영권(광저우)-박지수(경남), 김민재-권경원(톈진)이 호흡을 맞춰 공격전개의 시작점 역할을 했다.

벤투 감독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곧장 선수들에게 알려주며 완성도를 높였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나상호, 박지수, 주세종, 김영권 등이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